

<보도자료>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사태
인천시 교육청 진상조사 결과
보도자료**

□ 2007년 4월 25일(수)

□ 문의: 전누리 (02-365-5359, 016-297-9803)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경과 보고>

산곡중학교 인권 침해 사태 진행 경과 보고

2007년 3월 말

산곡중에 재학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한 학생(아이디: 산곡중일원)이 청소년인권 활동가네트워크 카페에 산곡중 박용주교사의 성폭력적 언어사용, 차별, 강제이발등의 학생인권을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하는 글을 퍼다 올림.

3월 29일

박용주교사가 네트워크 카페에 글을 삭제 해달라는 글을 올림. 글을 지우지 않을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함.

네트워크 담당자와 통화에서 강제이발은 했으나, 차별이나 성폭력적 언어사용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

3월 30일, 4월 2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산곡중 하굣길을 찾아가 박용주 교사의 학생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학생들 피해사실이 있다고 증언.

4월 9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천시교육청에 산곡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진정,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함.

4월 11일

교육청 1차 현장방문 진상 조사. 박용주 교사, 강제이발, 언어적 성폭력 등 대부분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인정.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함. 학교측도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4월 13일

교육청 2차 현장 방문 조사(1차 조치 결과 확인)

4월 19일

네트워크에 현장조사 결과문 음.

<성명서>

**인천시교육청의 발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산곡중을 비롯한 인천의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다.**

이번에 우리는 산곡중 학생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강제이발을 포함한 두발단속과 빈번한 체벌, 그리고 언어적 성폭력 등으로 산곡중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던 박용주 교사가 인천시교육청의 조사·조치로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지난 4월 10일 낸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 진정”의 처리 결과를 지난 주, 산곡중 현장 조사와 산곡중 내에서의 조치 및 교육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 처리서”를 통해 통보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조사 이전 우리와의 통화 등에서는 강제이발과 두발단속 이외의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하던 박용주 교사가 “본인이 성격이 급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제시된 체벌 기준에 의거 체벌을 안 한 일도 있었지만” “수업 분위기 쇄신을 위한 농담이 학생들에게 교육자에 대한 불신과 여성비하적인 광의의 성폭력으로 인지된 것”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맡아 책임감과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 등, 모호한 표현이긴 하나 자신의 인권침해 행위를 대부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산곡중 내 조치로 박용주 교사가 자신이 강제이발을 한 학생들을 불러 강제이발 사실을 사과하였다는 점,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학교 당국이나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데 인색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이다.

그러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산곡중 내에서의 구체적인 조치가 오직 강제이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에게만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용주 교사는 체벌이나 두발단속 자체, 학생 모욕적 행위나 발언 등 다양한 학생인권 침해를 자행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으나 교육청 조사에서 학생 면담이나 실제 산곡중 내 조치는 오직 강제이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강제이발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된 박용주 교사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산곡중 학생들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직 강제이발을 당한 학생들만을 교무실로 불러서 사과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부분이 단지 “산곡중학교에 대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조치 강구”라고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인천지역은 차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강제야자가 횡행하는 등 학생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 4명의 턱없이 부족한 전문상담교사에게 의존하거나 학생부장 교사들에게 생활지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연수 같은 정책들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이 산곡중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발 빠르게 조사·조치를 처리한 것은 교육청에 학생인권 신장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강제이탈 사안에만 집중하여 그 외의 많은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산곡중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공개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실시 등 학생인권 사안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서, 우리는 교육청이 인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청은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부장 교사 연수 이상으로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끌어올리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인천지역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인권 침해가 발견될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산곡중 사건에서 얻어낸 학생인권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이,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청이 앞으로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힘쓰길 바란다.

2007년 4월 25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자료1]- 인천시 교육청 진상 조사 처리서

진정(건의·질의) 처리서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 진정”

1. 작성자 현황

- 접수번호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민원서류 241호
- 접수일 : 2007.4.10(화) 15:30
- 작성자 : 유윤중(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이하 기본정보 생략

2. 진정내용(요약)

산곡중학교 학생부장인 박용주 교사의 학생 체벌, 강제이발, 언어적 성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해당교사 및 산곡중학교장의 사과와 책임 요구

- 1) 두발규제에 관한 건
- 2) 체벌에 관한 건
- 3) 모욕적 행위 및 성폭력적 언사에 관한 건
- 4) 강제적 자율학습에 관한 건

3. 1차 현장 방문 진상 조사 실시

- 1차 현장방문 조사기간 : 2007.4.11(수) 09:00~12:00
- 현장방문 조사장소 : 산곡중학교 교장실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량다리길 6번지
- 전화번호 : 032-523-7322
- 현장방문 조사자 : 김태용(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참석자 : 최춘섭(산곡중학교 교장), 구건서(교감), 박용주(학생부장), 학부모(최민규 母), 강인구, 이주영(산곡중 3학년 학생)

[학교장-교감 면담]

-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교사의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인해 학생-교사-학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 학생의 인권침해와 비교육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해당교사의 공식 사과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지도대책을 강구하겠음.
-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 없도록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기획·운영 하여 365일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인 산곡중학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음.

[학생부장 박용주 교사 조사]

박용주(학생부장) 교사는 1958년생으로 전북대학교 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2007년 3월 현재 교육경력 24년의 중견교사로 작년 3월에 산곡여중에서 산곡중학교로 전근하여 2006년에는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고 금년에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박용주 학생부장은 동료교사들이 08:30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07:10 분경에 출근하여 보통 19:00경에 퇴근하고 있고, 학생 사안 관련 면담으로 인해 자주 23:00경에 퇴근하는 등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한 교사임.

1) 두발규제

-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학교에서는 미준수 학생에게 선도규정에 의거 수차례 지도하였지만 전혀 개선의 지가 보이지 않아 3월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사전 안내 및 강제 이발을 방송과 등교시 정문에서 해당학생들에게 직접 고지를 하였음
- 본인도 강제이발이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지하였기에 교사로서의 언행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짧은 생각에서 해당 학생들을 학생부로 불러 두발단속에 대한 취지와 과정을 이해시켰고, 학부모에게도 전화로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한 후 강제이발을 시행하였는데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을 몰랐음
- 현재 본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생들에게 강제이발을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는 물론 향후 재발 방지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정식으로 표명하겠다고 함.

2) 체벌

- 본인이 성격이 급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제시된 체벌 기준에 의거 체벌을 안 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와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 시켰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변화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의 훈육으로 매를 가한 적이 있음. 특히 2007년도에는 매를 때린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4월 11일 현재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대리는 것, 발길질과 같은 체벌을 자행하지 않았음.
- 인터넷에 올린 학생에 대한 체벌과 2006년 복학생에게 행한 심한 테벌에 관해서는 사실 무근이며 복학생 권○○군은 복학 후 수차례에 걸쳐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행사 다른 아이들을 부하녀동시켜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동료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금품 갈취, 작은 무단외출과 가출, 두발불량, 동료학생에 대한 교내흡연 권유 및 압력, 편모슬하의 권○○군 어머니의 자녀교육 기피, 담당교사의 지도 불응과 여교사에 대한 욕설과 위협 등 학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반복하였고, 본인에게도 물리적인 대항으로 정당방위 차원의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체벌로 비쳐져서 당혹스럽다고 함.

3) 모욕적 행위 및 성폭력적 언사

- 과학교사인 본인이 수업중 성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건전한 양성평등의식 형성과 인성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함.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짤은 성농담이 아닌 수업 분위기 쇄신을 위한 자구책으로의 농담

이 학생들에게 교육자에 대한 불신과 여성비하적인 광의의 성폭력으로 인지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강제적 자율학습

- 시험기간 중 담임반 학생에 대한 성적향상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효과를 기대하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일일이 전화로 학부모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시행한 담임교사주도의 자율학습이었음
- 담임교사의 의욕이 지나쳐서 학생들에게 휴식권이나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로 인지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본인의 순수한 동기에서 우리나라의 지도방법이었는지 다른 목적이나 동기는 없었다고 함.
- 향후에는 학생들의 자율권이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함.

처음으로 학생부장직을 맡아 책임감과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인해 산곡중학교 학생-교사-학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내일이라도 자신이 강제이발을 시행한 학생들을 불러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초래하게되어 미안하게 되었다고 공개 사과를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강구하며 교사 본인은 물론 산곡중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로 발돋움 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기로 하였음

[최민규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

포탈사이트인 [naver 지식 in]에 장문의 글을 기고한 최민규 학생의 어머니를 만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부모님들의 심경을 청취.

- 최민규 학생은 작년 박용주 선생님 반의 학생으로 선생님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도 전혀 없이 그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인터넷에 글을 써 보았는데 이렇게 확대·과장·왜곡 전파될 줄을 몰랐다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수십년간 교단에서 열과 성을 다한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 시켜드려 너무도 죄송하고, 별 생각없이 쓴 글이 산곡중학교와 박용주 선생님을 인터넷을 통해 매장시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함.
- 또한 아들이 쓴 글을 사실 확인도 안하고 ‘산곡중일원’이라는 아이디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댓글까지 붙여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크게 확대되어 가족 모두가 고통스럽다고 토로함.
- 또한 부모로서 아들이 쓴 글을 글쓴이의 허락이나 사전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명과 협조를 구하려고 여러번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한번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연락도 없었고,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너무도 한쪽의 의견만 수용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함.

[강인구, 이주영 학생과 면담]

산곡중학교 3학년 강인구, 이주영 학생은 ‘교육청 민원 Q&A와 클린신고’에 글을 올린 학생으로 솔직한 심경과 답변을 들어보려고 임석 교사 없이 면담을 실시하였음.

- 작년에도 학년 초 두발지도에 대한 사전 고지는 여러 번 있었으나 실제로 가위를 이용한 강제이발은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경고성으로 지도를 하셨는데 금년과 같은 강제이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그 당시에는 화가 많이 났었다고 함.

· 학생부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것은 좋지만 무단 외출, 교내흡연 학생들에 대하여 다른 선생님들도 보다 무척 엄하게 다스리셔서 선생님이 무섭다고 함.

· 과학수업 중에 성교육과 관련된 단원 지도시 농담으로 가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음.

·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셔서 가슴이 후련하지는 않았지만 성의있는 표현과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토로함.

4. 2차 현장 방문(1차 조치결과 확인) 조사 실시

○ 2차 현장방문 조사기간 : 2007.4.13(금) 15:00~17:00

○ 현장방문 조사장소 : 산곡중학교 교장실

○ 전화번호 : 032-523-7322

○ 현장방문 조사자 : 김태용(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참석자 : 최춘섭(산곡중학교 교장), 구건서(교감), 박용주(학생부장)

[산곡중학교 내에서의 조치 결과]

1) 학생들에 대한 공개 사과 실시

· 박용주 학생부장은 1차 현장 방문조사 후 12일(목), 13일(금) 쉬는 시간마다 강제 이발을 실시한 학생들을 불러 자신의 강제이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자신이 다른 뜻이 있어서 행한 행동이 아니라 의욕과 열의가 지나쳐서 일어난 일이니 만큼 서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혹시 마음이 상했다면 심심한 사과를 한다며 비온 후 땅이 더욱더 굳어지듯이 본인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매사에 모범을 보이며,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사랑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아버지처럼 잘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며 산곡중학교가 즐겁고 신나는 배움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일일이 악수와 포옹을 하였다.”고 함.

· 그러자 학생들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겠다며 너무도 좋은 분위기에 서 사제시간에 정이 오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음.

· 또한 이번일로 인해 자신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매사에 근신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염려하며 더욱더 노력하는 교사로 서겠다며 의지를 보였음.

2)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가정통신문 발송

· 최춘섭 학교장은 4월 13일(금) 전교생에게 학생의 인권과 자율·책임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창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학생흡연예방, 안전교육 철저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발송하여 학부모-학생-학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음.

3) 교내 학생생활규정 정비 및 부장교사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한 학교교육력 신장을 위한 1박2일 부장교사 워크숍 실시

· 최춘섭 학교장은 4월 13일(금)~14일(토) 1박 2일 동안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시설을 이용하여 부장교사 워크숍 실시를 했음.

· 당일 워크숍에는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부장교사 11명이 참석하는 등 총 13명이 참석하

여 산곡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제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규정과 학생지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결의를 표명함.

· 또한 부장교사 자신들의 업무를 자신만이 알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부장교사 및 전체 교직원에게 잘 홍보하여 상호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학교교육력 크게 신장되는 계기가 되자며 심도있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4) 각종 연수를 통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

· 산곡중학교에서는 향후 학교의 각종 행사나 학생-학부모-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계획 · 추진하여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가 존중되는 학교문화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함.

[교육청에서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1) 산곡중학교에 대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지도가 되도록 조치 강구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산곡중학교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시 유의사항을 비롯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시 유의사항을 비롯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대책 강구 및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사과 실시 여부 확인 및 유감 표명 실시

2) 관내 중학교 학생부장 연수 및 전문상담교사를 활용한 학교 지원 사업 실시

· 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근간이 「학생의 인권 · 자율 · 책임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이라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부장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지도 정보공유 및 연수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구하겠음.

· 오는 4월 26일(목) 진산중학교에서 관내 20개 중학교 학생부장 전원에 대한 학생부장 전원에 대한 학생생활지도시 유의점과 학생의 인권 및 교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제2회 학생생활지도 효율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임/

· 교육청에 상주하여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순회상담하고 있는 2명의 전문상담순회교사와 동암중학교와 진산중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계신 2명의 상담교사로 하여금 인근학교와 네트워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활동 및 교사-학부모-학생에 대한 연수를 계획 · 실시하고 있음.

5. 기타 외부 학부모 단체 회장과의 전화 통화 실시

○ 1차 전화통화 실시 : 2007.4.10(화) 11:00경

○ 2차 전화통화 실시 : 2007.4.13(금) 17:00경

○ 전화통화자 : 노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장)

○ 전화번호 : 032-438-3970, 011-338-9303

○ 전화송화자 : 김태용(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 지난 3월 하순에 산곡중학교에서 빚어진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진정서에 기록된 것처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대책 강구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여 달라는 요지로 통화 실시

· 4월 10일(화) 오전 현재 진정서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학교에 담당 장학사를 파견하여 진상조사와 더불어 향후 지도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4월 13일(금) 오후에 담당장학사의 1차, 2차 현장방문 조사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해당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교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들을 위의 기록을 토대로 장시간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노현경 회장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이번 사안이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교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감사하다며 통화를 종료하였음.

<첨부자료> 4월 9일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천 산곡중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 때: 2007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 곳: 인천시교육청 앞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리고 개인활동가들)

<상황 보고>

인천 산곡중학교 학생인권 침해 상황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인천 산곡중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은 3월 말, 산곡중에 재학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아이디: 산곡중일원)이 네트워크 카페에 한 글을 올리게 되면서입니다. 그 글은 산곡중의 학생부장 박용주 교사가 저질러온 체벌, 언어적 성폭력, 강제이발을 고발하는 글이었고, 이미 여러 포털사이트에 내용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 항의글이 올라온 이후, 놀랍게도, 글의 주인공이었던 박용주 교사가 카페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삭제를 요구하며, 자신은 두발에 대해서 훈화와 말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던 학생에게 강제이발을 했지만, 체벌과 언어적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곡중일원’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되며, 그 사람의 신원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아무개 교사의 글이 올려오자, ‘산곡중일원’이 쓴 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 네트워크와 2차례 정도의 통화에서 박용주 교사는 자신이 강제이발을 했으나, 폭력과 언어적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글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그 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지우겠다는 대답을 했고, 덧붙여, 박용주 교사에 대해 강제이발에 대해 언론이나 교육청, 인권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박 아무개 교사는 아무런 반성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산곡중일원’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네트워크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산곡중 상황에 대해 묵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학생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네트워크는 산곡중을 찾아가 하교길의 학생들을 만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안타깝게도, 글의 많은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두발규제

◎ 두발규정은 앞머리 뒷머리 길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길어 보이거나 ‘단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도 함.

◎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여 두발규정에 어긋나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잘라올 것을 요구하며, 학생부실로 데려가서 체벌을 하기도 함.

◎ 박용주 교사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잘라오지 않으면 강제이발을 하겠다고 하다가, 3월 23일 수업시간에 (주로 2학년) 학생들 다수의 머리를 가위로 자름. 뒷머리를 일자

로 자르거나 구레나룻을 자르거나 땀뿡을 만드는 등.

⇒ 두발규제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게다가 산곡중에서는 두발단속 과정에서 체벌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마저 금지하고 있는 강제이발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 체벌

◎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갔다거나, 떠들었다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체벌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체벌의 수단과 형태는 몽둥이, 매를 사용한 체벌, 체육관·체육창고에 ‘엎드려 뺨쳐’를 시켜놓고 때리는 것,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체벌, 발길질 등 다양함.

◎ 인터넷에 박용주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심한 체벌을 가하는 등, 체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함.

◎ 작년에는 두발단속에 걸린 복학생이 도망을 가자 심하게 체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싸대기’를 때리고 넘어뜨려서 때리는 등 심하게 체벌.

⇒ 체벌은 인권의 기준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약자에 대한 폭력임. 국제인권기구도 여러 차례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산곡중에서는 체벌이 상습적일 뿐 아니라, 체벌 사유나 체벌 절차, 그리고 체벌의 수단 등에서 교육부가 고시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무시되고 있음.

* 모욕적 행위 성폭력적 언사

◎ 학생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바지를 “까는” 등 모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작년(2006년)에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농담’으로 “여자 가슴 만지는 게 좋아 보는 게 좋아 핏는 게 좋아”라고 묻거나 여성비하적 발언 등을 자주 했음.

⇒ 처벌로서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바지를 벗기는 것이나, 수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으로 여성비하적 발언이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함. 또한,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수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런 발언들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작년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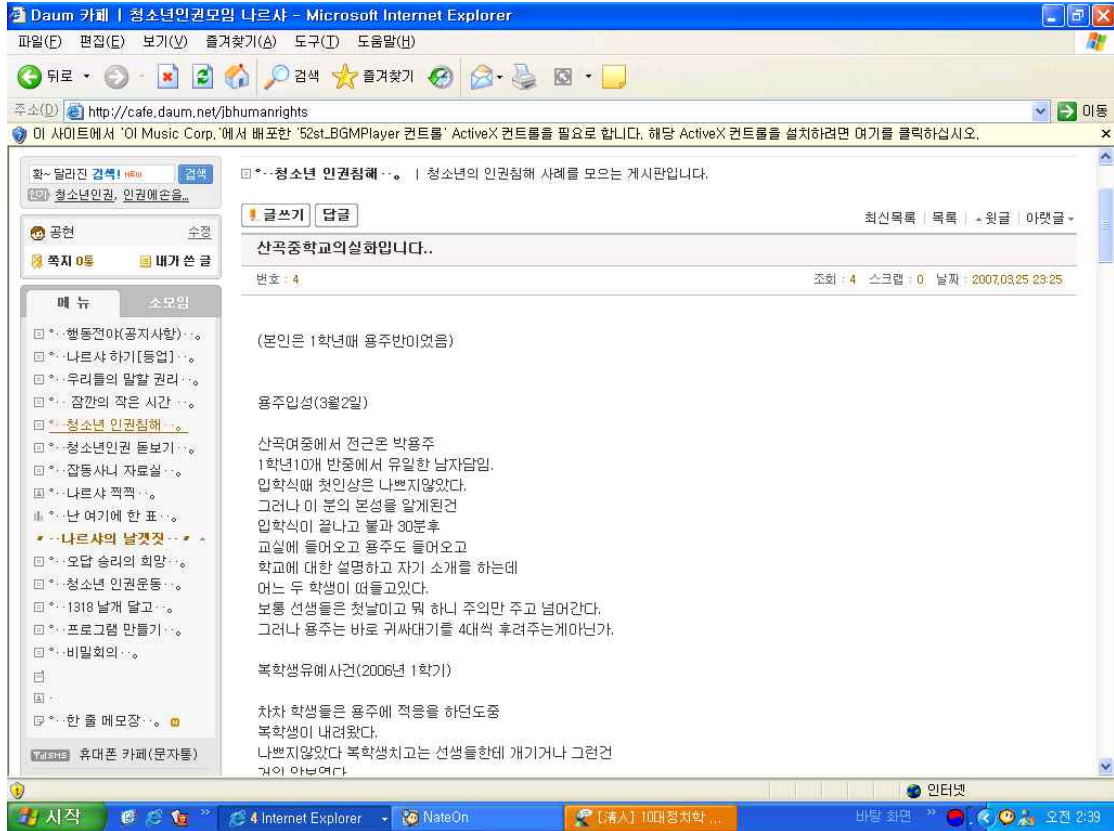
* 강제적 자율학습

◎ 시험기간에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공부를 시킴.

◎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통제하며 ‘자습’을 시킴.

⇒ 한국은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습부담이 이례적으로 높은 편임. 정규교과 외에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임. 과중한 학습부담은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음.

<첨부자료 1>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산곡중 글



(본인은 1학년때 용주반이었음)

용주입성(3월2일)

산곡여중에서 전근온 박용주
 1학년10개 반중에서 유일한 남자담임.
 입학식때 첫인상은 나쁘지않았다.
 그러나 이 분의 본성을 알게된건
 입학식이 끝나고 불과 30분후
 교실에 들어오고 용주도 들어오고
 학교에 대한 설명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어느 두 학생이 떠들고있다.
 보통 선생들은 첫날이고 뭐 하니 주의만 주고 넘어간다.
 그러나 용주는 바로 귀싸대기를 4대씩 후려주는게아닌가.

복학생유예사건(2006년 1학기)

차차 학생들은 용주에 적응을 하던도중
복학생이 내려왔다.
나쁘지않았다 복학생치고는 선생들한테 개기거나 그런건
거의 안보였다.
그리고 두발검사를하던날..
용주가 복학생보고 머리를 자르랬더니
복학생은 거부하는것이였다.
용주는 결국 종례 끝나고 같이 머리깎으러 가자고했지만
이 복학생은 도망을쳤고
다음날 이 복학생을 두들겨패는데
차마 두눈으로 보기힘들 정도로 잔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고 눕혀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학생들 없는 조용한곳에서 체벌을한다면 모를까.
학생들이 보는앞에서 그렇게 체벌을 하는것이다.
그러다가 그 복학생이 참다못해 내뱉은말이
'학교 안나올게요'
라는 한마디였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났으면 그런말을 내뱉을까
더 빠돌은 용주는 조패고 복학생은 그이후로 나타나지않고 유예처리가되였다.

농담용주
수업을하다가
지루하지않게
농담을 던지는 선생님 .. 나쁘지않다 아니. 좋다.
용주도 수업하다가 농담을 할때가있다.
그런데 농담이 참 음란스러운 농담이다.
남학교라 그렇다고 치자.
가만있는 애보고
"넌 여자 습가 만지는게좋아 보는게좋아 핏내는게좋아?"
라는등..
솔직히 저거 웃기지않다.
그런데 애들은 웃는다.
이유는 웬지 안웃으면 맞을것같은 기분..
한심하다..

운동회용주(운동회시즌)
ㅋㅋㅋ본인은 이걸겪었다. ㅋㅋ

운동회를 앞두고 우리반은 열심히 운동회연습을 하고있었다.
애들 남겨서 연습하는것 자체를 애들은 싫어했다.
그래도 즐겁게 연습을 하는데
장대 이어달리기라는 종목을 연습하는도중
본인은 뒤쳐진애들 덕에 넘어졌다.
ㅋㅋ 근데 갑자기 본인보고 앞드려뻘치라고 하는게아닌가 ㅋㅋ
그리고는 허벅지를 때리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아픈지도몰랐다. ㅋㅋㅋ
세상에 .. 진짜 운동회도아니고
연습하다 넘어진걸가지고 때리다니 ㅋㅋㅋ
지금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ㅋㅋ

공부용주

1년에 총 4번의 중간고사.기말고사가있다.
또 2학기말에는 시립고사인지 먼지하는
못봐도돼는 상관없는 시험을 본다.
용주는 이때마다
모든 아이들을 4시 30분까지 남겨서
공부를 시켰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하는 분들..
겪어봐야한다.
진짜 짜증난다.
다른반은 다 8시 30분까진데
우리반만 8시까지여서
아침도 못먹고 어설피게 학교를와서
오자마자 9시까지 자습시키고
점심시간에 다른반 다 나가놀때
우리반만 반에 처박혀서 자습을시킨다.
또 수업시간 다 빠지고 4시 30분까지
또 자습 ㅋㅋ 학교에서 8시간 30분을 처박혀있는다. ㅋㅋ
자는시간보다 길다 ㅋㅋ

그리고 오늘..

강제로 머리자른사건(2007년 3월 23일)

역대 용주사건중 가장 열받고 좇같고 어이없는 사건이다.
이날 대략 2학년만 2~30명가량 잘린것같다.

본인도 잘릴뻔했지만 말빨로 겨우 잘리지 않았다.
오늘 사건은 몇일전부터 용주가 방송으로 계속 떠들어댔다.
사춘기에 멋도부리고싶은 나이에 머리를 기르고싶던 아이들은
깎지않았다.(깎았는데도 잘린아이들도있다.)
이에 용주는 가위로 무차별적으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애들은 분노했다.(어떤 그지새끼는 잘렸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할거없다.)
여기서 잠깐 두발규제라는게 왜있는지 짚고넘어갈 필요가있다.
학교는 공부하는곳이다.
공부랑 머리카락길기와 무슨연관이있나.
찾을수없다.
또 우리나라 헌법 12조 1항엔 분명히 나와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법은 괜히만들었나? 어이없다.
머리가길면 탈선율이 증가한다고?
웃기지마라
오히려 당신들이 머리깎아라 깎아라 하는 스트레스로
반항과 분노의 표시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
(통계자료에서도 담배피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절반이 어른들에 대한 반항으로 제일많았다.)
아까 복학생 사건도그렇다. 두발규제따위만 없었어도
복학생은 유예되지도 않았을것이다.
군대도 두발규제가 있다고?
군대하고 학교하고 같다고 생각하는건가?
천만의말씀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고
학교는 '공부 하는 곳'이다.
엄연히다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단합하고 훈련하는곳이기때문에 두발규제는 있는게 당연한것이다.
학교는 공부하는곳인데 왜 머리를 못기르게 하는것인가
솔직히 머리쭝 기르면 어떻게 돼나?
머리기르면 100%비행하고 탈선하나?
당신들의 상상에 지나가는 똥개가 쳐웃고 다닐거다
어이없는 소리마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용주는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수업분위기 흐려놓고
마구 머리를 잘라버렸다.
분명 인권침해다.
분명 잘못이다.
설마설마했다.
애들 대부분이 그랬다.
"설마 자르겠어? 그냥 겁줘서 애들 스스로 깎게하려는거겠지.."

설마가 사람잡는다고.. 진짜잘라버렸다.

난리났다

애들은 신고한다고 교육청에 올릴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귀 기울일 새끼들이아니다.

학생이란 이유로 이렇게 무시당하는게 너무싫다.

그냥 한국이 싫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말로만 써부렁거리는 대한민국이 정말싫다

다른나라 9시까지 여유있게 아침먹고 잠 폭자고 학교갈때(교문에 아무도없다)

우리나라는..

에휴.. 말할 가치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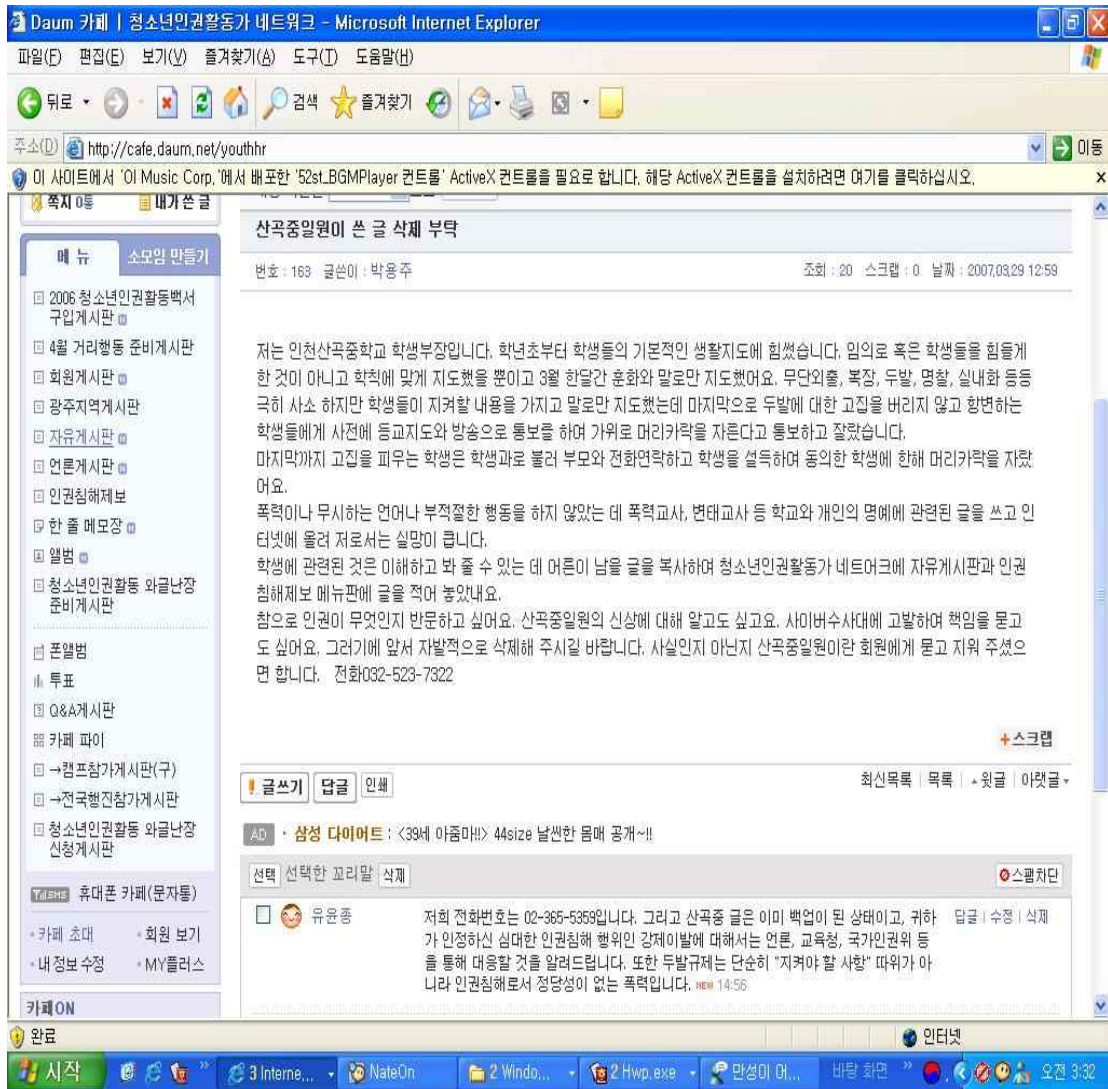
용주가 이글을 제발 봤으면 좋겠다.

제발...

(이글을 정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뿐이고요 어떻게야할까요 ...

신고한다면 어떻게어디서 ?)

<첨부 자료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라온 박용주교사의 글



<첨부 자료 3> 산곡중 하교길 학생들의 증언 녹취

녹취1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예 교내에서 체벌이나 이런 강제이발이나 이런 교사 분들한테 당하신 게 있으시거나 보신 게 있으시면 네 죄송한데

산곡중 학생1 : 머리 잘리구요 그냥 머리 잘리고 막 안 자른다고 좀 개기는 애들은 다 맞고

산곡중 학생2 : 주먹으로 막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다 여기 터지구요

산곡중 학생1 : 싸대기 맞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싸대기 맞고

산곡중 학생3 : 수업시간에 장난쳤다고 싸대기 맞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직접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

산곡중 학생1 : 당한 거는 그냥 떠들다가 맞은 거밖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떠들다가 맞은 거고 친구들이

산곡중 학생2 : 그거 머리 막 자르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머리 그냥 강제로 이발하시구요

산곡중 학생3 : 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떤 선생님이...

산곡중 학생3 : 박용주

산곡중 학생2 : 박용주요

산곡중 학생1 : 박용주 선생님이요

산곡중 학생2 : 용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위가 심하신 편이세요 그러면?

산곡중 학생2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럼 그러면 그 혹시 그런, 그런 분 아 그, 안 맞은 학생도 있는지

산곡중 학생2 : 예

산곡중 학생1 : 몇 명은

산곡중 학생2 : 잘 피해간 애들 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보통 그냥 그 어떤 학생들 많이 때려요?

산곡중 학생1 : 머리 기른 애들이나

산곡중 학생2 : 좀 불량스러운 애들

산곡중 학생3 : 실내화 안 신고 온

산곡중 학생2 : 좀 떠들고 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예 감사합니다

녹취2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강제이발이라거나 그런 그 폭력, 체벌을 직접적으로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산곡중 학생4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 수위가 어느 정도셨는지
산곡중 학생4 : 그니까, 다 잘라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머리를요?
산곡중 학생4 : 머리를 다 잘라요. 수업시간에도 막 들어와서 강제로 다 잘라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업시간에도요?
산곡중 학생4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그럼 체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산곡중 학생4 : 때려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때려요?
산곡중 학생4 : 네 막 주먹으로 아무데나 때려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주먹으로요? 아... 그러면 그런, 뭐 혹시 본인 말고 친구 분들도 많이
산곡중 학생4 : 네 심하게 맞았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심하게
산곡중 학생4 : 네이버에 올렸다고 막 배로 막 밟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배로 밟구요 아... 그분 혹시 성함이 박용주 선생님 맞으시죠?
산곡중 학생4 : 네 맞아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럼 혹시, 그분 한 분만 그러시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몇 분 그런 계신 건지
산곡중 학생4 : 그, 그 선생님만 그래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그 선생님만요? 아... 감사합니다.

녹취3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제가 저 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혹시 체벌이라거나 강제이발을 당하신 적 있으신지
산곡중 학생5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두 개 다 당하셨나요
산곡중 학생5 : 아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러면 뭐...
산곡중 학생5 : 강제이발만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강제이발만 당하셨어요? 그럼 폭력
산곡중 학생6 : 나도 머리 잘렸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그때 상황을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산곡중 학생5 : 아뇨 갑자기요 수업시간에 딱 들어와서요 딱 갑자기 너 나와 너 나와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딱 애들, 애들을 세워놓은 다음에요 그 문방구에서 파는 가위로요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잘라요 막 불만하면요 때릴 것 같아서요 애들 다 가만히 있어서 잘랐어요
산곡중 학생7 : 학생부에서 까이고 왔어요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체벌 당하셨어요?

산곡중 학생7 : 까이고 왔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러면은 그런 체벌을 본 적이라도 없으신가요. 본 적이 없으신가요?

산곡중 학생5 : 엄청 때려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엄청 때려요?

산곡중 학생5 : 네

산곡중 학생7 : 무조건 싸대기예요

산곡중 학생8 : 죽때기를 그냥 주먹으로 날려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반은 죽어요

산곡중 학생7 :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갔어요

녹취4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러면 혹시 혹시 성적 발언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으세요

산곡중 학생9 : 제가 그 반이었어요 4반이었어요 갑자기요 야

산곡중 학생10 : 자지 막 뽑아버린다구요

산곡중 학생9 : 와 맞아 맞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수위가 심하신가봐요

산곡중 학생9 : 예 제가 4반이었거든요 근데요 하는 말이에요 야 여자 가슴 어, 여자 가슴 만지는 게 좋아 보는 게 좋아 핏는 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계속 물어봐요 할 때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그럼 또 다른 또 혹시 다른 내용이

산곡중 학생11 : 그냥 까요 까

산곡중 학생9 : 그냥 애들 옷을 벗겨서요

산곡중 학생11 : 까요 아나 진짜 까요 그냥

산곡중 학생9 : 이게이게 체육복을 이렇게 싹 (바지를 내리는 시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아 당한 학생이 있, 보신 건가요 당한 학생을?

산곡중 학생9 : 봤어요 제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직접 보셨어요. 그 당한 학생 기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산곡중 학생9 : 그냥 웃던데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웃,그럼 뭐

산곡중 학생9 : 억지스럽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억지스럽게 그냥 선생님 앞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산곡중 학생9 : 야 나 오늘도 까이는 거 아냐

녹취5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산곡중 학생12 : 학생부실에 가서요 몽둥이로요 팔을 이렇게 쳤어요 근육통이 생기구요

산곡중 학생13 : 시발 뭐 근육통이야 개놈아

산곡중 학생12 : 허리 허벅지

산곡중 학생13 : 개새끼 뭐 근육통이야

산곡중 학생14 : 멍, 멍은 들었어도... 근육통까진
산곡중 학생12 : 근육통이었어 그리고 왼쪽 무릎은 인대가 손상이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인대 손상까지 나왔
산곡중 학생12 : 이걸 이렇게 깎아요 그냥 옆드려 있는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옆드려 있는데?
산곡중 학생12 : 파바바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감사합니다.

녹취6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저희가 그 이런 산곡중의 인권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데요 혹시 그 체벌이나 강제이발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곡중 학생13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아 그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편하게 말
씀하셔도 돼요
산곡중 학생13 : 지각했다구요 많이 맞은 적 있는데요 심하게 싸대기까지 맞은 적도 있구요
그 정도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럼 친구 분들 이렇게 당하신 것도 보신 적 있는 건가요
산곡중 학생13 : 1학년 때요 어떤 형이 그 복학을 했었는데요 학교 안 더 안 다닌다 그랬다
가요 싸대기 맞고 눕혀서 밟기도 하고 그 정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같은 반이셨어요?
산곡중 학생13 : 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때 1학년 때 몇 반이셨어요?
산곡중 학생13 : 4반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4반... 아 혹시 뭐 성적 발언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
어요?
산곡중 학생13 : 네 그건 1학년 때 장난 식으로

녹취7 (2007년 4월 2일 산곡중학교 하교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강제이발이나 체벌 이런 거 직접 당하신 거나
산곡중 학생14 : 반 돌아다니면서요 머리 긴 사람들 막 자르고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수업시간에?
산곡중 학생14 : 네 갑자기 들어와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어 그럼 체벌 그때 그그 아 예 체벌 수위가 심한 것까지 말씀
해주셨죠. 때리는 건 어떻게 때리는지
산곡중 학생14 : 싸대기하구요 족탕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주먹질이요?
산곡중 학생14 : 예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혹시 그분 담임 선생님 아니었어요 그분이?
산곡중 학생14 : 담임 아니었어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그 혹시 시험기간 때요 그 반 학생들 남기고 강제로 남겨서 그 반만 남겨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산곡중 학생14 : 네 2... 저희 학년 말구요 2학년인가 그랬다는데 점심시간에도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끝나고 공부하라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사실인 거죠?

산곡중 학생14 : 네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감사합니다.

녹취8 (2007년 3월 30일 하교길)

산곡중 학생15 : 가위로 막 자르고 실수라 그러고 땀뺀내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박용주 선생님 언어폭력 같은 것도 있었나요?

산곡중 학생15 : 막 욕하죠. 그러고 막 신고하지 말라고 하구요. 네이버에 쓴 글이요 다 지워달라고 해요. 막 개네 누군지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때렸다면... 그거 하는 애들 다 때리고, 발길질하고...

녹취9 (2007년 3월 30일 하교길)

산곡중 학생16 : 실내화 신고 운동장에 나갔었는데요 애들이 몇명 도망쳤는데요 저도 그때 도망쳤었는데 애들보고 잡아오래요. 저하고 다른 애 한 명은 둘이 잡혔어요. 근데 그래서 먼저 여기 기다란 거 마포걸레 뒷자루로요 아직도 명들어있을걸요. 두 대 맞구요, 거기 '앞드려뺀쳐' 하고 있었어요. 아직 흑도 남아있는데 막대기 갖고 머리도 한 대씩 때리고 넘어지면 발로 차고. 애들은 도망쳤다가요 잡혀왔거든요. 체육관 들어가서 열대씩 맞고 저도 다시 체육창고 있잖아요 구령대 아래 거기 들어가서 맞고 막.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굉장히 심하네요. 혹시 박용주선생님 그분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몇 분이 또..

산곡중 학생16 : 한 서너분...

진정(건의·질의)서

· 진정인

주 소 :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7 3층
성 명 : 유윤종(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02-365-5359

· 제목 : 인천 산곡중학교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교육청 진상 조사 요구진정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3월 한 제보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귀 기관의 관할에 있는 인천 산곡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의 재직하고 있는 박용주교사가 체벌, 강제 이발, 언어적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 제보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의 결과는 애석하게 제보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에서는 이 중대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 귀 기관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펼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 산곡중의 인권침해사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인 박용교사와 산곡중학교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곡중학교인권침해사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진상조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명서>

인천시교육청은 산곡중의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라!

지금 인천 산곡중학교에서는 강제이발을 비롯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7년 3월 말 몇몇 포털사이트들, 그리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산곡중학교 ‘박용주’ 교사가 학생에게 가한 체벌 폭력과 언어적 성폭력, 강제이발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곧이어 ‘박용주’ 교사가 직접 쓴 강제이발은 사실지만 폭력 등 다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글 삭제 요청과 함께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박용주’ 교사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직접 전화를 하여 산곡중학교의 학생인권 침해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사실관계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직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한 현장 조사에서는, 많은 산곡중학교 학생들이 인터넷 글에 쓰있던 ‘박용주’ 교사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들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곡중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두발규제와 강제이발이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강제이발 사실은 ‘박용주’ 교사 본인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인정한 바 있다. 동의를 얻고 여러 번의 통보 후에 행한 강제이발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어떠한 압박도 가해지지 않은 학생들의 진정한 ‘동의’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통보를 했다고 해서 강제이발이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했던 두 번의 현장 조사 결과 ‘박용주’ 교사 본인이 부정했던 신체적 폭력과 욕, 성적인 언어폭력 등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수업시간에 강제이발을 하거나 2, 30명을 모아놓고 가위로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싸대기”를 때리는 일, 발길질 등 인권 기준은커녕 교육부의 기준도 한참 벗어나는 체벌과, 학생들의 바지를 벗기는 성폭력, 여성비하적인 내용의 언어적 성폭력 등, 증언에 따르면 산곡중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했다는 인권침해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산곡중학교에 학생인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두발자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본권임을 인정한 신체의 자유이자 개성발현권, 표현의 자유이다. 학생들에게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로 신체적으로 훼손[규제] 당하지 않을 권리 혹은 개인의 신체결정권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의 강제이발을 금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체벌이 고문의 일종이며 체벌을 없애는 것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의 기준에서는 한참 부족하지만 교육부나 법원 판례들도 ‘허용’할 수 있는 체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곡중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은 이 또한 어기고 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여성 비하적이거나 성폭력적인 내용의 발언들은 성폭력 소지가 있으며,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저해해서는 안

되는 교사이기에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교육행위에 대한 지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박용주 교사 자신도 인정한 강제이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학생들이 증언한 위의 인권침해 행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바란다. 만약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 기준은커녕 교육부의 기준도 무시하는 비교육적인 체벌, 성희롱과 여성비하적인 내용의 성적인 언어폭력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이 산곡중학교장과 '박용주' 교사에게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곡중 뿐만이 아니라 인천지역, 그리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제와 강제이발, 폭력을 행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이 산곡중을 포함하여 자기 관할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할 것과, 두발용의복장규제, 체벌로 대표되는 학교의 이러한 행태가 없어지도록 하고 신체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도록 지시·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4월 10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 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 청소년인권활동가들)